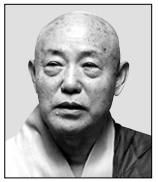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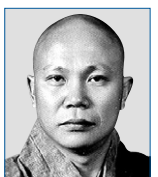
도문스님, 우리문화재찾기에 500만원 쾌척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2월 14일 경북도청에서 박영석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 대표에게 해외 밀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500만원을 전달했다.



쌍계사 정기보살계 대법회
하동 쌍계사 주지 성조 스님은 3월 26일 오후 2시 쌍계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대법회를 입재하고 28일 오전 8시 장경정대불사를 봉행한다.



월정사 한임대중사 61주기 추모다례제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3월 6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한임 스님 61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한다. (033)339-6600



해인사 제5차 화엄21 천도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4월 26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제5차 화엄21 천도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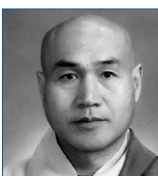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신년하례법회
지송동 대법건설 회장(조계사 신도회장)은 2월 10일 송광사 서울포교당 법련사에서 열린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다.

<원적> 태고종 원로 보봉 스님 원적



태고종 원로의원이자 승정원 부원장인 보봉 스님이 2월 13일 세수 86세, 법랍 50세를 일기로 원적했다.
스님은 1972년 송정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범해사 흥법원 주지, 제2대원로회의 의원 등을 역임했다. 스님의 영결식은 2월 17일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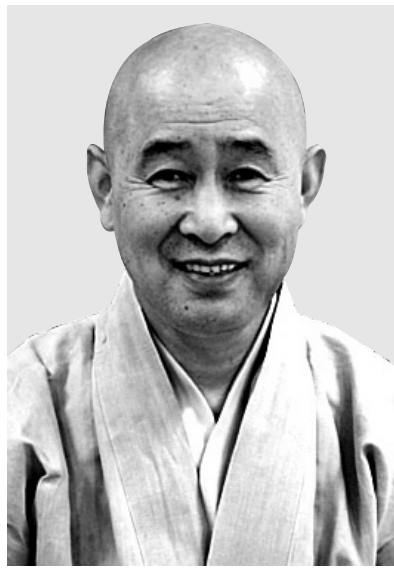
조계종 울원대표 각일 스님 선출



조계종 중앙종회 울원 분야 직능대표에 각일 스님(수리사 주지)이 선출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4차 회의를 열고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울원 분야)로 단독 입후보한 각일 스님을 선출했다.
각일 스님은 도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재적본사는 화엄사. 스님은 1979년 화엄사에서 명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흥륜사 주지와 화엄사 기획국장·재무국장, 보살사·태안사 주지를 역임했다.

“왕따 문제 불교계가 앞장 서야”

파라미타 제6대 회장 정여 스님



“청소년 포교는 사람의 허리 혹은 주춧돌과 비유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청소년 포교가 활성화되면 한국불교 뿐 아니라 세상도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조계종 청소년 포교의 핵심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총재 지원)를 이끌 새 수장에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사진)이 2월 10일 추대됐다. 정여 스님은 제5대 회장 도후 스님의 사임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도후 스님의 잔여 임기인 2015년 2월까지다.
파라미타 6대 회장으로 추대된 정여 스님은 그동안 부산지역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 왔다. 어린이포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한불교사대학을 설립했고 2008년 부산 파라미타 총재로 선출됨과 동시에 1인 1문화제 지킴이 사업을 펼치는 등 청소년 운동을 전개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여 스님은 이날 “파라미타는 조계종 청소년 포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회장으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배우고 공부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말했다.
정여 스님은 문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파라미타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일진

회를 비롯한 학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청소년 문화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가치관 형성 등 인성교육에 불교계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입시 경쟁에 내몰려 정서를 함양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현실이 주원인”이라며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청소년의 시야를 넓히고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외국인과의 함께하는 영어 템플스테이, 불교연극 및 영화 제작, 문화제 지킴이 활동 등을 계획 중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고운사, 각성 스님 ‘금강경’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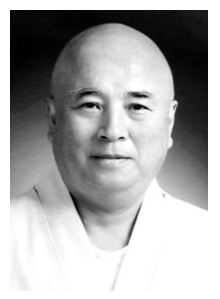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2월 13~17일 고운사 선체협관에서 각성 스님 초청 <금강경> 특강을 개최했다.
각성 스님 특강에는 100여 스님들과 대중들이 참석해 스님의 열강을 경청했다. 각성 스님은 “사구제 한 귀절을 듣거나 다른 이에게 전해준다면 한하사 모래의 수 보다 많은 정보를 보

시한 공덕보다 그 공덕이 더 수승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운사는 해마다 특강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각성 스님 특강은 조계종 ‘승려연수교육에관한령’에 의거해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30점의 점수가 부가된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전국 사설사암단체 하나로 모은다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3월 2일 국회서 워크숍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회장 지암, 임제불교조계종 총정·사진)는 3월 2일 오후 1시 서울 국회 대회의실에서 법인회원 연대 결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0년 4월 30일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법인 설립인가 이후 첫 행사로 160여 종단 단체장을 비롯해 종단총무행정업무 종사자 등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



석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단, 재단 그리고 복지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며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토론회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법사대학 제20회 졸업식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암)은 2월 12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20회 졸업식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품수식은 법사과정(1년), 대법사과정(2년), 불학연구원과정(5년) 수료생 120여 명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육해공 불자 사관생도 졸업축하법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와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는 2월 15일 진해 해군사관학교와 서울 육군사관학교 내 법당에서 각각 ‘불자 사관생도 졸업과 임관을 축하하는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어 영천 은혜사(주지 돈관)는 2월 17일 영천 3사관학교 내 법당에서, 공

주 영평사(주지 환성)는 2월 21일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 내 법당에서 각각 졸업기념법회를 열었다.
각 졸업 축하법회에는 스님과 불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생도들에게는 조계종 포상 및 교구장상 등 표창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금강선원 제34기 선하불교대학 개강

서울 금강선원(선원장 혜가)은 2월 27일 제34기 선하불교대학을 개강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

분부터 오후 2시까지 19주에 걸쳐 진행되며 혜가 스님이 직접 불교교리와 의전 등 불교입문과정을 지도한다.
(02)445-8484
노덕현 기자

외국인 불자...묘각사에서 붓다를 만나다

국내 최초 외국인들 육법공양 예라도르 등 8개국 22명 참가



낙산 묘각사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심층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수계사 흥파 스님은 수계사 심지 법문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해 제2의 고향으로 알고 일생동안 삼귀의례와 신도5계를 잘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낙산 묘각사(주지 흥파)는 국내 최초 외국인들이 부처님께 육법 공양을 올리고 수계를 받는 심층 템플스테이를 2월 12일 진행했다.
지난 2011년 11월 6일부터 네 달간 진행된 심층템플스테이 ‘Living in the Moment’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에라도르 등 총 8개국 외국인 22명과 한국인 4명이 참가했다.
이번 심층템플스테이에서는 여여 스님의 영어토론과 참선, 요가 그리고 절의응답 등이 진행됐으며 화향프로 그램으로 육법공양과 수계식이 진행

Advertisement for Hanyang University of Medicine (한국의대) and Namgyeo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남경중의약대학). Includes sections for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and '중·고생 조기유학'. Lists admission requirements, application procedures, and contact information.